

# 文·安 선대위 ‘박차’

### 문재인, 안희정·이재명 캠프 인사들 대거 합류

### 안철수, 선대위원장 박지원·손학규·박주선 유력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번 주 내에 선대위 구성을 마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동 선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상징성 있는 외부 인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우선 민주당은 선대위 구성의 화두로 ‘통합’을 내놓고 있지만 출발부터 꼬이고 있다. 지난 5일 발표한 통합선대위 대변인단에는 이재명 캠프 측 인사만 속 빠진 것이다. 문재인 캠프는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여진이 있는 상황이다.

추미애 대표와 문 캠프와도 미묘한 긴장감이 벌어지고 있다. 추 대표가 통합선대위 상황실장에 김민석 전 의원을 추천하자 문 캠프는 ‘통합 이미지와 맞지 않다’면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에서는 김민석-최재성 전 의원이 당의 선대위 구성 작업에 나서면서 오히려 갈등이 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미애 대표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사다. 전직 국회의장과 시민사회 원로 등이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영남의 김부겸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호남 출신의 선대위원장 영입에도 나서고 있으나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송영길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안 지사와 이 시장 캠프 인사들도 공동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문 캠프에서는 분위기가 흥흥하다. 당 중심의 선대위 구성에 안희정·이재명 예비 후보 캠프 인사들도 합류하게 되면서 문 후보 캠프 실무진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선대위에 참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선대위 구성이 여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안 후보 캠프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소수 정당이라는 점에서 선대위 구성에 갈등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박지원 대표와 경선 후보였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박주선 국회의장이 유력하다.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미래와 통합을 상징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경선 승리를 이끈 주역인 최경환(광주 북을) 의원은 안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기석(광주 서갑) 의원은 선대위 본부장 등 핵심 보직에 자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도 지역과 전문성 등을 토대로 선대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후보의 정계 데뷔 때부터 함께 해 온 ‘정치적 동지’인 김성식 의원은 정책과 메시지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선 캠프의 4본부 체제는 6~7개 본부 규모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며 안 후보 측은 본부장 인선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보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김정현 공보실장과 김재두·김경록 대변인 등도 선대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외부 인사들의 발걸음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안 후보가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대위에 포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돌발 악재 막아라” 文·安 캠프 비상

### 文, 아들 특혜·盧 사돈 음주사고 은폐 공세 대응팀 가동

### 安, 경선 동원 논란 전담반 운영...박지원, 최고수준 경계령

5·9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강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진영에서는 막판 돌발 악재 최소화과 네거티브 공세 저지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문재인 후보 측은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여기에 이언주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관

련, 문 후보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사태까지 겹치면서 다시 패권주의 논란이 부상하면서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 측에서는 각종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팩트 체크’를 통해 진실을 규명, 극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선 캠프에 꾸렸던 ‘가짜뉴스 대책단’을 선대위에 다시 구성하고 당의 디지털소통위원회를 결합, 초대형 ‘네거티브 대응팀’을 구성한다.

여기에 선거법 등 각종 법률 자문과 행

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지원단’을 운영,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팩트 체크’에 나선다.

SNS 상에 유포되는 게시물과 댓글에 대한 검증과 대응은 물론 사실 관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물론, 도를 넘은 비방에 대한 법적 대응도 맡는다.

안 후보 측은 문 후보에 비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입장이다. 최근 악재라고는 경선에서의 불법 동원 논란이지만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직적인 동원 보다는 경선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어난 ‘사고’(?) 성격이 짙다는 것이 내부적 판단이다.

하지만, 경선 동원 논란과 관련, ‘차폐

기’ 공세와 조직폭력배 연루 논란 등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네거티브 공세도 거칠어질 것으로 보고 선대위에 이를 전담하는 대응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악의적 댓글과 가짜뉴스를 검색해 삭제 요청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는 적극적 방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지원 대표는 내부적인 돌발 악재 방지를 위해 당내 구성원들에게 긴장감을 갖고 행동하라는 최고 수준의 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월 묘역 찾은 홍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은 홍준표 “전두환 회고록은 억지”

###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해야...방명록 두번 쓰는 해프닝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6일 야권의 텃밭인 광주를 방문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을 착시현상이라며 보수표 되돌리기에 나섰다.

홍 후보는 이날 광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보수 우파는 안철수에게 안간다. 일 시적으로 안희정에게 갔다가 안철수에 갔다가 방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는 결국 좌파 우파가 각이 저서 가는 것이지 어정쩡한 중도는 좌우로 갈라진다”며 “보수우파들이 아직 집결을 안 하고 있지만 후보등록 전까지는 돌아오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2중대,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의 2중대다. 대

선 끝나면 재편돼서 흡수되는 정당이다. 독립 못한다”며 “우리 캠프의 체제가 정비되면 바뀔 것이다. TK지역도 다음 주에는 확 반전이 올 것이고 PK도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5·18 의거라고 표현한 홍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공약에 대해 “5·18 의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의 과정이었다. 개헌 시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기념곡 지정 논란에 대해서는 “왜 그럴 못하게 하는지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식기념곡 지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해선 “회고록을 못 봤다”면서도 “본인(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당시엔 실세가 모든 것을 장악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주장 자체가 조금 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한편 홍 후보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한자로 ‘열사봉공(賊私奉公·사사로움을 버리고 공적인 일에만 힘쓴다는 뜻)’을 남기면서 ‘私(사사로움 사)’자를 ‘死(죽음 사)’자로 잘못 써 다시 고쳐쓰는 ‘해프닝’을 빚었다.

홍 후보는 “이 분들이 죽음으로써 항거를 했기 때문에 ‘죽음 사’자를 썼다”며 “기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그 뜻을”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 文, 동지들과 ‘호프타임’

### 안·이·최에 제안...통합 행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경선에서 겨뤘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을 주말인 8일 만나기로 하는 등 통합 행보를 이어간다.

안 지사와 이 시장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 지사와 이 시장 측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문 후보가 경선 후 패자 측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이날 만남의 결과가 주목된다.

문 후보 선대위 권혁기 부대변인은 6일 여의도 당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 측에서 안 지사, 이 시장, 최 시장 등에게 8일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며 “다들 일정이 있었지만 응해서 만남이 성사됐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미정”이라며 “저녁 시간대이다 보니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 ‘호프 타임’을 할 수도, ‘소주 미팅’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에서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안 지사나 이 시장 측 인사들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면서 당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날 만남으로 통합 노력이 부족하다는 안 지사와 이 시장 측 일부 인사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느냐는 점이다.

안 지사 캠프에서 경선을 치른 한 관계자는 “문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안 지사나 이 시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손이라도 잡고 사진이라도 찍어야 했다”며 “문 후보와 추미애 대표 둘이서만 사진을 찍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시장 측은 한 관계자도 “문 후보 측에서 이 시장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대위 합류를 요청할 때 후보가 직접 연락하지 않고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오더라”라고 불만을 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7~8일 전남 3곳 지방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

### 해남제2·순천나·여수나

전남지역 4·12 지방의원 보궐선거가 7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실시된다.

6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사전투표가 7~8일(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 투표는 오는 12일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전남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해남 제2선거구(도의원)와 순천 나선거구·여수 나선거구(시의원) 등 3곳이다.

해남 제2선거구 출마자는 더불어민주당

주당 양재승 전 해남부군수와 국민의당 박성재 땅굴농협 이사 등 2명이다.

여수에선 민주당 김승호 전 국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이정만 법무사, 민중연합당 김중근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무소속 박남조 월호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무소속 최재중 무덕체육관장 등 5명이 등록했다. 순천 출마자는 민주당 강형구 전 순천시의원, 국민의당 김호준 전 낙안원예협회장, 무소속 이명옥 전 언론인, 무소속 최진도 전 별량농업협동조합장 등 4명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